

정조대 『국조오례통편』 편찬의 정치적 배경

박수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harksa08@gmail.com

- I. 머리말
 - II. 정조 즉위 전후의 의례서 편찬
 - III. 정조의 추숭사업과 『국조오례통편』 편찬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머리말

조선시대에 '오례'라는 이름을 가진 의례서는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오례』, 성종대 『국조오례의』, 영조대 『국조속오례의』·『국조속오례의보』, 정조대 『국조오례통편』, 고종대 『오례편고』가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이하 『오례통편』)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춘관지(春官志)』·『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의 의례서 연구가 차근차근 축적되면서, 기본 정보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례통편』이 정조 시대에 의례서로서 가지는 위치를 가늠해 보면,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조 21(1745)년에 『춘관지』가 편찬되었다. 예조등록의 기록이 산만하여 사실을 제대로 고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의례 정리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맹휴(李孟休)가 편찬을 주관하며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정조대에는 『춘관지』 편찬이 심화·확장되었다. 1781년(정조 5)에 이맹휴의 조카 이가환(李家煥)이 『춘관지』의 수정·증보를 명받았다. 1784년에는 『춘관지』 편찬에서 더 나아가 국가전례의 의주를 종합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오례통편』 편찬에 착수했다. 유의양(柳義養)을 중심으로 『오례통편』이 편찬되었고, 여기에 예의 원류 등 연혁까지 더해진 『춘관통고』가 집대성되었다.¹

1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사료와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홍재전서』 권 164, 일득록; 김문식,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의 자료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12(2007a); 김문식, 「『春官志』 필사본의 원문 비교」, 『성호학파의 인물들』 4(2007b);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한국학보』 114(2004); 송지원, 「정조대 의례 정비와 『春官通考』 편찬」, 『규장각』 38(2011); 이현진, 「정조대 국가전례서의 편찬과 그 성격: 『국조오례통편』과 『춘관통고』의 「홍례」를 중심으로」, 『영·정조대 문예증흥기의 학술과 사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의례연구는 ‘문물정비’ 외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편찬의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의례서란 법 규정과 의식절차를 담은 법전과 예제이다. 이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국가체제의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간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 전례서의 편찬의의를 문물정비에서 찾은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일련의 의례서 편찬은 실제 운용을 위한 실용적 의미 이상의 상징성과 정치성을 포함한다. 영조와 정조가 여러 차례 편찬한 국가 의례서 혹은 그와 관련한 서적 편찬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포착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조대 『오례통편』에 담긴 ‘오례’의 상징성과 정치성이다. 의례연구라 하면 의례서의 내용 분석을 근거로 그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러한 인식 때문에 편찬배경의 정치적 고찰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례서를 편찬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례서가 본디 정치사회에서 출현하여 이미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례서 편찬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²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전과 예전의 편찬물 자체가 조선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권위의 상징물이므로, 의례서에 부여된 힘과 상징성

2 모든 의례서는 당연히 현실의 필요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출현하므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의례서의 내용 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검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의례서란 관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분에 따라 왕명을 수행한 편찬물에 불과한데, 그러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들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왕의 직접적 표명이 없는 한, 의례서에서 정치적 의미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 등이다.

을 정치적 배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연구라 생각한다. 더욱이, 모든 의례서의 편찬이유가 시기별·상황별로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의례서 편찬을 논하는 것은, ‘의례의 정치성’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찰 중 하나로서 『오례통편』 편찬 당시의 정치적 상황, 편찬 명을 내렸던 정조의 입장,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의 집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혼맥 관계, 가족들과 본인의 정치적·학문적 성향, 교유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례서의 편찬성격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조가 왜 『오례통편』이라는 의례서를 만들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배경 안에서 만들어진 편찬물이라는 것만으로도, ‘오례의’가 ‘의례의 정치성’을 논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번 연구가 의례내용 분석이 아닌 편찬 당시의 정치 상황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정조대 정치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³,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⁴은 조선후기 정치사를 대표하는 연구들이다. 그리고 『정조와 정조시대』⁵,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⁶은 정조대 정치사를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18세기 국가운영체제의 재정비」⁷에서

3 이태진, 石井壽夫, 오수창, 정석중, 이종범, 정만조, 박광용의 연구(태학사, 2003).

4 이태진, 박광용, 정만조, 김백철, 이근호, 조성산, 김성윤, 김정자, 최성환, 김문식 등의 연구(태학사, 2011).

5 김인걸, 문중앙, 배우성, 한상권, 박현순, 정재훈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6 이경구, 박경남, 전용훈, 송양섭, 노대환, 오수창, 조성산의 연구(역사비평사, 2017).

7 정재훈, 「18세기 국가운영체제의 재정비」, 『정조와 정조시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제시한 18세기 국가운영 관련 연구의 사상사·정치사적 연구검토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이를 참고하는 것으로, 본고의 연구사 정리에 대신하고자 한다.

위 연구의 '사상사적 연구검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상의 주체를 사대부에만 국한함으로써 탕평국왕이 자임한 군사(君師)의 역할에 대해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본고는 사대부의 역할과 더불어 그동안 소홀했던 국왕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정치사적 연구검토'에서는 조선후기의 봉당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를 거론하였는데,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가 본고의 연구범위이다. 위의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박광용, 최성환, 이근호의 연구성과⁸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정치세력의 동향과 정치운영론 연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현황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정조의 국가운영 체제정비, 그 가운데서도 의례정비에 대한 것이다.

마침 최근의 성과 가운데, 정조의 국가운영론과 탕평정치, 그리고 정치세력의 동향 등을 함께 고찰한 연구⁹가 있으므로 이를 정조대 사상과 정치사의 기준으로 삼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의례연구를 진행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본고가 주소재로 삼은 『오례통편』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하 『속오례의』, 『속오례의보』,

8 박광용, 「朝鮮侯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영조와 정조의 나라』(푸른역사, 2000);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a); 이근호, 『英祖代 蕩平派의 國政運營論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9 정만조, 「정조 치세의 정국동향과 정책추진」, 『정조대왕자료집』 1(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정만조, 「효의왕후 생애를 통해 본 정조 비빈들의 삶」, 『정조대왕자료집』 2(2019).

『상례보편』)의 합본이다. 그러므로 이들 의례서는 물론이고, 시기적 공통점, 그리고 다음 의례서의 저본이 되거나 참고가 되어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편찬물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조대 『오례통편』 편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조 즉위 전후의 의례서 편찬

정조는 1752년(영조 28)에 태어나 1800년(정조 24)에 승하하였다. 정조 49년의 생애에, ‘오례’라는 이름으로 편찬된 의례서에는 『오례통편』이 있다.¹⁰ 이 의례서는 영조대 편찬된 『속오례의』(1744년), 『속오례의보』(1751년), 『상례보편』(1752·1758년)과 큰 관련성을 가진다. ‘오례’라는 이름 외에 정조대에 편찬된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궁원의(宮園儀)』·『송사전(宋史筌)』, 『춘관지』·『춘관통고』 등도 『오례통편』의 내용과 편찬자들 구성에 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들은 영조시대의 정치 상황, 그리고 영조시대 의례서 편찬과의 관련성과 연속성 상에서 정조시대의 의례서 편찬의미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정조 재위 이전에 대한 검토는 『오례통편』의 편찬 시기에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의례의 정치’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정황 제시 정도로만 여겨 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례보편』(1752년)의 편찬 시기는 결코 정조의 일생과 무관하지 않으며, 편찬자들은 정조 즉위 이후에도 활동하는 정치가

10 『오례통편』의 기존 편년은 순조대 최종원고 수습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조 전반기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초고본의 편찬시점을 기준으로 편찬의미를 고찰하였다.

들이다. 이처럼 『오례통편』 편찬의 정치적 성격을 밝히는 데 참조가 되는 정보가 있다면, 『상례보편』 및 관련 의례서의 편찬이 본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볍지 않다.

그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례통편』 편찬 이전, 즉 정조 즉위 전후의 정치적 상황과 의례서 편찬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고찰은 정조가 출생한 1752년, 『상례보편』의 편찬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1752년의 『상례보편』(영조 28) 편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상례보편』 수정 중에 의소세손(정조의 형)의 상을 당하면서 세손의 상의(喪儀)도 수록하지만¹¹, 이 의례서 편찬이 조문명(趙文命)의 딸인 효순현빈[효장세자빈]의 상례가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편찬의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조문명이란 인물을 주목해보자. ‘과연 왕가의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 특별한 의례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의례서 편찬과 상관없어 보인다. 하지만 1752년 『상례보편』의 「편집시말」은 현빈의 죽음으로 인하여 의절을 강정(講定)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² 그러므로 조문명에 대한 이해는 세자빈 집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고, 의례서 편찬 시기와 맞물려 있는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조문명은 영조가 재위 초반기 탕평책을 추진할 때 주도세력이었으며, 영조 중반기 송인명과 함께 탕평주역이었던 조현명(趙顯命)의 형이다. 조현명은 1746년(영조 22) 송인명 사후 탕평의 주인이었다.¹³ 비록 후사를 낳지는 못했지만, 세자빈은 영조의 탕평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풍양 조씨 가문의 딸이었던 것이다.

11 『승정원일기』 1752년(영조 28) 10월 5일(임진).

12 『國朝喪禮補編』(奎 1339, 영조 28) 卷五, 「編輯始末」.

13 정만조, 「영조와 그 시대」, 『영조대왕자료집』 1(2012a), 37-38쪽; 송인명, 조문명, 조현명은 동궁요속 출신이다(정만조, 「肅宗後半~英祖初의 政局과 密菴 李裁의 政治論」, 『密菴 李裁 研究』(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311쪽).

1752년의 『상례보편』(영조 28)이 조문명·조현명 집안을 의식한 의례서 편찬이었다면, 1758년의 『상례보편』(영조 34)은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 이 의례서는 1757년(영조 33) 인원대비(仁元大妃)와 정성왕후(眞聖王后)의 서거로 편찬되었다. 인원대비는 영조가 왕위에까지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세자의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존재였다.¹⁴ 대비 사후에는 왕실의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지면서 세자의 지위가 동요되었다.¹⁵

영조는 왜 굳이 을해옥사와 같은 사건을 겪으며, 정치세력의 분화까지 일어난 이때에 대비와 왕비의 상장의례서를 편찬해야만 했을까? 신만(申晩)이 작성한 『상례보편』(영조 34) 「어제서(御製序)」에 따르면, 이전에 편찬된 『상례보편』(영조 28)은 정리되지 않은 의논과 생략된 부분이 많아 참고하기가 어려웠다. 한 번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다가, 연이은 왕후상을 당하여, 『오례의』와 『상례보편』(영조 28)을 서로 참조하여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¹⁶

전례대로라면 등록이나 의례 제작만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의전 준비였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순탄치 않았던 시기에, 영조는 이들의 상을 맞아 등록이나 의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례보편』이라는 특별한 의례서를 편찬하여, 애도의 마음을 각별히 드러냈다. 『속오례의보』를 편찬한 영조 27년에는 뒷날 임오화변의 비극을 잉태하는 사건으로 평가되는 변성무설(辨聖誣說)이 있었다.¹⁷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을해옥사는 영조 28년의 『상례보편』과 영조 32년의 『상례보편』 편찬 사이인 1755년(영조 31)에

14 인원대비와 정성왕후가 왕세자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정만조(2012a), 앞의 논문, 19-41쪽).

15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48쪽.

16 『國朝喪禮補編』(奎 3940, 영조 34) 「御製國朝喪禮補編後序」.

17 『상례보편』(영조 28) 편찬 바로 전 해인 1751년(영조 27)에 『속오례의보』가 편찬되었다. 변성무설과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정만조(2012a), 앞의 논문, 38쪽).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영조의 정치적 의도를 추정해보는 것이지만, 왕실의 며느리와 왕비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의례서를 만들어야할 만큼 당시의 정치 상황은 여유롭지 않았고, 내용과 규모는 이전 모든 문물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거나 완벽을 기한 의례서가 아니었다. 『속오례의』 편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보완서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속오례의』조차 영조의 포부가 담긴 정치적 의례서로 보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상례보편』을 단순히 의례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편찬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인원대비와 정성왕후 사망 후, 즉 영조 34년 『상례보편』 편찬 후에는 정치적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영조는 1759년(영조 35)에 반(反) 세자 세력의 핵심인 김상로와 연결된 호론 명가의 김한구의 딸을 왕비(정순왕후)로 맞아들이고¹⁸, 1761년(영조 37) 세손빈(효의왕후)을 맞아들였다. 임오화변(1762년, 영조 38)이 발생한 직후에는 남인과 결탁하여 정권을 넘보았다는 구실로, 사도세자의 보호를 자처했던 조재호(趙載浩)¹⁹를 사사(1762년 6월 22일)하였다.²⁰ 1762년(영조 38)의 사도세자 참변을 거친 후, 영조가 복정하여 영조 40년부터 탕평이 다시 신척되었다. 당시 13세의 세손이었던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아 죄인의 아들이라는 혐의를 피하게 해주었고(갑신처분), 1772년(영조 48)에 청명당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또다시 세손의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힘썼지만²¹, 영조는

18 최성환, 「정조의 왕세손 시절과 학습」, 『정조대왕자료집』 1(2017), 864쪽.

19 정만조(2012a), 앞의 논문, 38-39쪽.

20 효의왕후는 金時默의 딸이다. 김시묵의 중형제인 김상묵(세손의 대리청정을 방해한 홍인한의 당여), 김광묵(살홍론) 등의 정치활동(정만조, 「효의왕후 생애를 통해 본 정조 비빈들의 삶」, 『정조대왕자료집』 2(2019), 803-824쪽)은 영조가 입장을 바꿔 반 세자 세력과 혼사를 맺고, 조재호를 사사한 이유 등을 밝히는 데 참고가 되는 내용들이다.

21 정만조, 「『燃藜室記述』의 종합적 이해」, 『실학시대의 역사학 연구』(2015), 257쪽;

1776년(영조 52) 3월 5일 승하하였다.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다음 연구를 위한 사전검토이기도 하지만, 정조대 『오례통편』 편찬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요컨대, 정조가 출생한 해에 편찬된 『상례보편』(영조 28)이 현빈을 위해 만들어진 데에는 그녀의 집안사람들인 조문명·조재호 부자, 조현명 등이 영조 중반기 소론 출신의 탕평주역이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뒤에 편찬된 『상례보편』(영조 34)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보호세력이었던 인원·정성왕후를 위한 의례서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상례보편』, 『속오례의』, 『속오례의보』 등은 훗날 정조의 정치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례통편』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이 의례서들에 대한 고찰은 결국 『오례통편』의 편찬성격에 대한 규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영조대 의례서를 정치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편찬물의 종합서인 『오례통편』에서도 정치적 활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1772년(영조 48)의 청명당 사건에 의례서 편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례보편』 편찬자인 정존겸(鄭存謙)과 『오례통편』 편찬자인 유의양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상례보편』 편찬 정보를 『오례통편』 편찬자의 성격을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이라서 그 지위를 보장받기도 하지만, 청명당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세손의 지위를 보장받기도 한다. 더 이상, 정조 즉위 이전의 상황들이 정조대 정치활동 및 의례서 편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38·840쪽;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96쪽.

그럼, 이제 정조 즉위 후의 의례 편찬에 대해 살펴보자. 영조 치세 말에 노론에 밀려 정치적 열세를 면치 못했던 소론·남인들은 정조의 즉위와 함께 처지가 바뀌었다. 이는 의례 편찬자들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조의 탕평정국에서 오광운(吳光運)과 채제공(蔡濟恭)에게 발탁되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성호 집안²²의 이가환·이복휴(李福休), 이지영(李祉永)²³을 비롯하여, 이복원(李福源)·이시수(李時秀)²⁴ 등 남인과 소론들이 정조의 탕평정국에서 의례 편찬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때 이들과 함께 노론으로서 참여한 사람은 유의양이다.

이들은 정조가 즉위 직후 설립한 규장각에 소속되어, 선세자 추숭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휘호(徽號)를 추상할 때 '사도세자를 존봉(尊奉)하는 의절'을 담은 『경모궁의례』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부사과 서유방(徐有防), 유의양 등이 참여했다.²⁵ 1780년(정조 4) 4월에는 『궁원의』를 간인했는데, 경모궁과 영우원에 관한 의식과 절차를 정리한 이 『경모궁의례』와 『궁원의』는 정조가 즉위 초에 사도세자니 수은묘니 하는 폄하의 뜻이 담긴 존호와 묘우의 승격을 위해 만든 의례서였다.

1789년(정조 13)에 현릉원 천원의 업무를 맡게 되는 이복원도 이미 정조 즉위 당일부터 이와 관련한 의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조가 이복원,

22 정만조, 「星湖學의 家門의 배경」, 『한국학논총』 37(2012b), 279-284쪽.

23 연안인 이지영과 여주인 성호 집안 사람들은 같은 남인이면서, 의례 편찬자로 함께 거론된다. 그들의 친분 관계는 이지영의 아버지 이만희의 부탁으로 성호가 써준 이지영의 조부 李濼의 묘갈명에 보인다. 성호와 李濼은 벗으로 지내기로 결의 [結爲友]하고 同甲契라 명명했다고 한다(『성호전집』 권62, 「刑曹佐郎李公墓碣銘 并序」).

24 이시수는 이지영(남인)과 같은 연안인이지만, 월사 이정귀 후손이며, 소론 시파 이성원파와 가까운 집안사람. 연안 이씨 3파와, 이 집안에서 의례 편찬자를 배출하게 된 배경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정만조, 「朝鮮後期 延安李氏 三陟公派의 근거지 확산과 坡州 정착」, 『한국학논총』 35(2011)).

25 『경모궁의례』 권4, 今制.

유익양 등에게 명하여²⁶ 경모궁과 영우원의 의물(儀物)을 그리고 의주를 서술하여 상·하권으로 위도록 한 『궁원의』의 편찬이었다. 여기에는 홍국영이 쓴 「어제궁원의인(御製宮園儀引)」과 이복원이 쓴 「발문」을 수록하였으며, 1785년(정조 9)에 중간한 『궁원의』는 「궁원의인」과 「발문」을 모두 이복원이 썼다.²⁷

이 외에도, 정조 즉위 초에 이뤄진 편찬에는 1780년(정조 4) 10월 10일, 규장각에서 완성하여 올린 『송사전』이 있다.²⁸ 이 『송사전』은 ‘송(宋) 나라를 정통(正統)으로 삼고 요(遼)와 금(金)을 덧붙인 것인데, 영국공(瀛國公)과 익위(益衛) 두 왕을 제기(帝紀)에 올려서 정통을 세웠다.’²⁹ 그러므로 이 편찬물은 정조가 선세자 추송에 필요한 의전의 전거를 마련하여,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모궁의궤』, 『궁원의』, 『송사전』 등의 편찬의미를 통해 『오례통편』의 편찬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가 『궁원의』에 대해 ‘본궁(本宮)의 전장(典章)으로서, 사체(事體)가 대전(大典)·오례의(五禮儀) 등과 다르지 않다’³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세자 추송에 관한 편찬물의 의미가 오례의와 다르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의례서 편찬자들은 『오례통편』 편찬자이기도 하면서, 선세자 추송사업의 실무진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은 『오례통편』이 반드시 선세자 추송사업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의례서임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선세자 추송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송사업

26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 9) 8월 9일(병술).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정조대왕자료집』3(2011), 14-15쪽; 『궁원의』에 대한 다음 연구(이현진, 「이복원의 궁원의(宮園儀) 편찬 과정」, 『문헌과 해석』(2011))에서, 이 의례서의 내용과 18세기 의례서의 가치를 참고할 수 있다.

28 『정조실록』 1780년(정조 4) 10월 10일(을묘).

29 『靑莊館全書』 권56, 蟲葉記 3.

30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 9) 8월 9일(병술).

실무진들의 『오례통편』 편찬의 참여의미와 『오례통편』의 편찬의미를 살펴 보겠다.

Ⅲ. 정조의 추숭사업과 『국조오례통편』 편찬

1776년(영조 52)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고,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하였다. 정조는 영조 말년 홍봉한과 함께 추숭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김귀주의 공격을 받았고, 즉위 직후에는 정조가 도리어 선세자 추숭론을 거론했던 소론 이덕사(李德師), 조재한(趙載翰) 등을 처벌하였다. 비록 험난하게 진행 되었지만, 정조가 재위 기관 중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선세자를 신원하고 왕으로 추존하는 일이었다.

정조는 이를 위해 먼저 권력을 재편하였다. 신회『상례보편』(영조 32) 편찬재를 처벌하고 김상로『속오례의보』(영조 27) 편찬자와 함께 선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홍계희『상례보편』(영조 28·32) 편찬자 집안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노론의 핵심을 제거한 다음,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될 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재위 2-3년 서명선을 영의정에 올려 준소 계통을 이은 원로 김상철, 심복인 정민시와 함께 소론을 이끌게 하였고, 청명당계의 김종수(金鍾秀)와 유언호(俞彦鎬)를 중용하여 소론 진출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무마하여 노론 축을 이끌게 했다. 정조 3년, 노론세는 약화하고, 소론은 약진하며, 남인은 점차 부상하였다.³¹

31 본고га 이해한 정조의 정치사는 정조의 정국을 '선세자 추숭사업'의 관점에서 연구한 정만조(2017), 앞의 논문에 근거하였으며, 이때의 정치 상황은 841-846쪽,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115쪽을 참고한 것이다.

정조 즉위 초의 정치사 개관에 해당하는 위의 검토는 '선세자 추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하였다. 이덕사, 조재한, 그리고 임오화변 현장의 주역으로서 처단된 노론의 홍계희, 신만, 신회³² 등은 영조대 의례서인 『속오례의』, 『속오례의보』, 『상례보편』의 편찬자이거나 편찬자와 관련된 집안사람이다. 이는 곧 의례서 편찬자들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국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됨을 의미한다. 또, 소론에 대응하여 중용했던 김종수와 유언호는 『오례통편』 편찬자인 유의양의 정치성을 파악할 때, 참고가 되는 인물들이다.

그럼, 이와 같은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오례통편』의 편찬의미에 접근해 보자. 이번 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오례통편』의 편찬자를 대표하는 유의양(1718-?)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선세자 추송사업에 필요한 의례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당색은 노론이다.³³ 유의양은 1776년(영조 52) 정조가 왕세손으로 주도한 응제(應製)에 1등으로 뽑혀 문명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³⁴, 세손궁 시절의 오래된 궁료(宮僚) 중 한 명으로 정조에게 우대를 받았다.³⁵ 그리고 “임금이 인산(因山)의 길일을 정할 때 성력(星曆)에 밝은 도청(都廳) 유의양의 말을 따랐다”³⁶고 기록될

32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53쪽, 114쪽.

33 유의양의 종조부인 柳復明은 1721년(경종 1) 10월 12일 사헌부지평으로서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반대하는 소론의 영수 조태구, 유봉휘 등을 탄핵하였고,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10일 영조가 즉위하자 소를 올려 김일경의 처형을 주장하였다. 유의양의 재종조부인 柳謙明은 1729년(영조 5) 9월 4일 이광좌를 척출하도록 간한 적이 있는 준론 성향의 인물이다. 유의양의 아버지 柳懋는 1724년(경종 4) 4월 24일, 1725년(영조 1) 1월 11일 송시열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경종실록』·『영조실록』·『승정원일기』 해당 날짜 기사에 근거함).

34 『영조실록』 1776년(영조 52) 2월 16일(무오). 왕세손이 尊賢閣에 앉아서 大提學 李徽之를 시켜 應製文을 考校하게 하여 으뜸을 차지한 유의양을 準職에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35 『정조실록』 1784년(정조 8) 7월 27일(경진).

36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 5월 8일(경진).

정도로 정조에게 학문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은 인물이다.

의례 관련 업적을 살펴보면, 유의양은 정조 즉위년부터(1776년) 『경모궁의궤』 제작에 참여하여 부사과로 이름이 올랐다.³⁷ 즉, 그는 ‘당저(當寧) 즉위 후 휘호를 추상할 때, 사도세자를 존봉하는 의절들을 한결같이 송나라 복왕(濮王)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는 연석(筵席)의 하교를 받아’ 의궤 제작에 참여한 한 명이었으며, 1779년(정조 3) 4월에 판서 서명응(徐命膺), 참관 서유린(徐有隣)³⁸ 등과 함께 번무(繁蕪)한 『송사(宋史)』의 산정·개찬을 명받은 승지였다.³⁹

그리고 1783년(정조 7) 6월 24일 박명원을 동지 겸 사은정사로, 이동욱을 서장관으로 삼았을 때 유의양은 부사를 맡았고, 그해 10월 24일 상사 황인점, 동부승지 안성빈, 서장관 이동욱과 함께 부사를 맡아 북경을 다녀왔다. 10월 15일의 사은사에는 유의양이 포함되지 않지만⁴⁰, 정조 7년의 잦은 사은사는 다음 해에 있을 왕세자(문효세자(1782-1786)) 책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 빠트릴 수 없는 업적은, 1789년(정조 13) 8월 신원(新園)을 현릉(顯陵)으로 정하기 몇 년 전에 원호를 고칠 것을 청한 일이다. 정조가 이 일을 두고 “송조(宋朝) 능호(陵號)와 근사(近似)하다”고 말한 것⁴¹은 선제자 추숭사업의 전거를 송나라의 역사와 예제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고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춘관지』와 『오례통편』에 관한

37 『경모궁의궤』 권4, 속제.

38 서명응은 앞서 언급한 서명선의 형으로 이들 형제의 당색은 소론 완론이며(최성환(2009a), 앞의 논문, 140쪽, 188-190쪽), 서유린은 노론 시파로서 아래에서 살펴볼 유의양의 정치적 성격을 밝히는 데 참고가 되는 인물이다.

39 『靑莊館全書』 권56, 蟲葉記 3.

40 이상,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해당 날짜 기사에 근거함.

41 『승정원일기』 1789년(정조 13) 8월 6일(기미).

업적이다. 『춘관지』 편찬은 1744년(영조 20) 6월,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 일을 담당할 책임자로 이종성의 추천을 받은 이맹휴는 1745년(영조 21) 9월에 초고를 완성하였다.⁴² 1781년(정조 5)에 이에 대한 수정·증보 작업이 이루어졌다. 7월 17일, 정조는 예조의 등록이 의절에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은데,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고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인현감으로 있던 이가환을 예조정랑으로 임명하고 예조등록을 교정하게 하면서, 『춘관지』에 대한 수정 명령도 내린 것이다. 8월 7일에는 예조 안에다 『춘관지』의 편찬을 전담할 이정청을 설치하고 예조참의 유의양과 예조정랑 이가환을 이정청의 당상과 낭관으로 임명하여 그 일을 전담하게 했다.⁴³

정조 5년은 김종수와 서명선의 노·소 보합정국 아래에서 규장각 초계문신제 운영을 본격화한 시기였다.⁴⁴ 1784년(정조 8)에 정조는 『춘관지』를 교정하던 예조참의 유의양⁴⁵을 불러 『속오례의』가 나온 이후의 모든 의주를 수집한 다음 이를 『국조오례의』, 『속오례의』 등과 합하여 『오례통편』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국가전례의 시행 과정을 정리하던 『춘관지』의 수정작업은 『오례통편』 편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⁴⁶ 유의양과 함께 거론된 이종성, 이맹휴, 이가환 등은 아래에서 검토하게 될 중요 인물들이다.

왜 정조 8년일까? 아직 마무리하지도 않은 『춘관지』 수정작업을 두고, 의례서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또 다른 의례서인 『오례통편』, 『춘관통고』의 편찬이 왜 필요했을까? 당시의 정치 상황 등 여러 요인을

42 『春官志』(奎貴 963) 「종묘」 항목.

43 『정조실록』 1781년(정조 5) 7월 17일(정사), 8월 7일(정축).

44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46쪽.

45 『승정원일기』 1784년(정조 8) 3월 20일(을사).

46 이상의 『춘관지』 편찬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홍재전서』 권183, 군서표기, 명찬 1, 춘관통고 96(1788)을 전거로 한 김문식(2007b), 앞의 논문, 48쪽; 이현진(2014), 앞의 논문.

고려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남인 편찬자로서 이지영의 참여 여부가 궁금하다. 이지영은 정조 6년 9월 15일부터 정조 8년 『오례통편』의 편찬 명이 내려지는 사이에 의례 관련 관직을 맡아 편찬 활동을 하였다.⁴⁷ 교정 임무를 맡아 1788년(정조 12) 봄에 『오례통편』 초본 26권을 작성해 올린 사람도 이지영이다.⁴⁸ 이렇게 정조 통치 전반기에 이지영은 이가환, 유의양 등과 함께 의례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조 8년에서 12년 사이의 정치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정조가 이 시기에 『오례통편』을 편찬한 이유를 고민해보자. 정조 6년에서 10년 사이, 시파와 벽파란 명목이 생기고, 1784년(정조 8) 6월, 노론 내부의 시·벽 분기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소론과 남인 내에도 파급되어 상호 배척이 심화되자, 정조는 1786년(정조 10) 청명당의 영수였던 김치인을 영의정으로 불러들여 그 수습을 맡겼다. 그리고 1787년(정조 11)에는 소론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보합진안책을 충실히 따르는 노론 시파내의 서유린·서유방 형제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러한 정조 정국운영의 조제보합 진정책에서 유의양과 이지영도 각기 노론과 남인으로 『오례통편』 편찬에 참여한 것일까? 정조는 재위 10년까지 서유린 위주의 시파와 김종수 중심의 두 세력으로 재편하여, 상호 비판 견제하는

47 정조 5년 윤5월 2일에 膳錄郎廳, 정조 6년 1월 20일에 禮曹正郎을 맡았으며, 그해 4월 21일에 예조정랑으로서 등청하여 祭享司 직임을 아릴 때는 膳抄冊子를 30여 권의 권질로 완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6월 10일 持平이 되며, 6월 13일 禮曹郎官, 6월 13일 校正堂郎이 임시할 때 正郎의 신분으로 禮曹參議 유의양과 함께 있었다. 9월 15일에 陽川縣令이 되었고, 정조 7년 11월 12일에는 正郎 이가환과 함께 前縣監의 신분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정조 8년 3월 16일 吏批의 관원현황을 보면 이지영은 이때 持平이 되어 한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였다(『승정원일기』 해당 날짜의 기사를 근거로 함).

48 『승정원일기』 1788년(정조 12) 5월 12일(계유).

공존 양상을 유지하였다.⁴⁹

본고에서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한 기왕의 정치사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두고 ‘정조가 노론 남당계에 뿌리를 둔 김종수계의 벽파 세력을 양성하고 시파에 맞설 만큼 키웠던 것은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임금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이들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한다. ‘선왕 영조가 내린 금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선세자의 덕을 드러내어 실제적인 신원의 의미를 갖는 형태를 취해야 했는데, 이때 정조 자신과 선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세력에 의해 추숭이 발의되고 추진된다면 공정성을 표방할 수도 있고, 명분도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이 평가를 의례 편찬자의 정치적 성격을 살피는 데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는 다음 사안까지 살펴본 후에 거론해보겠다.

1784년(정조 8) 7월에 왕세자 책립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왕실 내의 여러 어른, 즉 영조, 대비, 혜경궁에 대한 존호 추상도 있었다.⁵¹ 그러므로 이렇게 큰 왕실 행사는 정조 8년, 『오례통편』의 편찬 명을 내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조 즉위 직후에 서유방과 유의양이 함께 『경모궁의 궤』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규장각에서 『송사전』을 완성하여 올린 정조 4년, 서유린은 참판으로, 유의양은 대사간으로 상을 받았다.⁵² 함께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서유린·서유방 형제와 유의양의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49 정조 6년에서 10년 사이의 정치적 상황은 다음 연구(정만조(2017), 앞의 논문, 848-849쪽)를 참고하였다.

50 정만조(2017), 위의 논문, 849-850쪽.

51 정만조(2017), 위의 논문, 847쪽.

52 『정조실록』 1780년(정조 4) 10월 10일(을묘).

이러한 시도는 이들 형제에게 정권이 주어졌던 정조 11년 경의 상황에서, 유의양이 『오례통편』 편찬자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서유린 위주의 시파와 김종수 중심의 벽파 세력으로 재편되었을 당시, 유의양이 갖는 정치적 위치를 파악해보려는 의도가 있다.

1787년(정조 11), 정조는 사람들에 의해 시파로 지목되었던 소론 이시수, 노론 서유린·서유방 등에게 추송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빈 박씨 집안이 가세한 정황을 '정조가 장차 추진될 선제사 추송사업에 대한 노론계 사류의 지지까지 기대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주의해 보면⁵³, 유의양 역시 '노론 시파'로서 의례 편찬에 참여한 것일까?

유의양은 1771년(영조 47)에 남해로 유배 갔다가 유언호와 함께 방송(放送)된 적이 있다.⁵⁴ 그리고 다음해, 1772년(영조 48)의 유배는 김종수가 주축이 되었던 청명당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⁵⁵ 그렇다면 그를 임금의 정통성 확립에 활용했던 청명당계의 벽파 세력, 즉 앞서 살펴봤던 평가와 같이 임금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으로서 의례 편찬에 참여시켜 공정성의 효과를 기대했던 인물로 봐야할까? 아직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지만, 청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유의양을 '벽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고찰을 통해, 그의 정치적 입장에 접근해볼 수 있다.

우선 이천보(李天輔)의 동당계를 계승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서유린·서유방 형제는 영조대의 노론 동당계 이천보가 추구했던 노선을 계승한

53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52-853쪽.

54 『승정원일기』 1771년(영조 47) 7월 6일(갑진).

55 유의양의 나이 54-56세(1771-1773년)에 귀양을 갔는데, 신묘년(1771, 영조 47)에는 남해로, 임진년(1772)에는 아산으로, 계사년(1773) 여름에는 북도로 귀양을 갔다(유의양 원저, 최강현 역주, 『북관노정록』(신성출판사, 1999), 23쪽). 이 귀양은 시기적으로 1772년(영조 48)의 청명당 사건과 연결된다(이승복, 「유의양(柳義養)의 유배체험과 그 제시 방식」, 『고전문학과 교육』 37(2018), 79-83쪽).

다는 의미에서 노론 동당계로 지칭된다. 또한 서유방은 이천보의 사위로, 형 서유린과 함께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으로서 노론의리에 투철했으며, 양척론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이천보와 김원행의 노선을 이었다⁵⁶고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의양의 당색을 찾아보려는 것인데, 『미호집(澗湖集)』에 실린 김원행과의 문답⁵⁷을 통해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김원행 역시 ‘동당계 산림’으로 지칭되므로⁵⁸ 김원행과의 교류만으로도 유의양의 동당 계승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뿐만 아니라, 이천보와 황경원(黃景源)의 교유는 유의양이 서유린 형제와 같이 이천보와 김원행의 노선을 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전거가 되기도 한다. 황경원이 바로, 유의양 부모의 묘갈·묘지명을 지었기 때문인데⁵⁹, ‘이천보는 낙론 학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며, 이재(李緯)의 제자 가운데, 황경원 등과 친밀하게 교류했다’⁶⁰는 연구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상례보편』(영조 34) 편찬자라는 점에서 눈여겨 본 정존겸은 철저한 시파로서 정조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평가되는데, 청명당 사건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⁶¹ 정존겸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고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의양은 학계에서는 동당계 낙론, 정계에서는 시파로 분류되는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외에도 유의양과 교류하는 인물들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참고하였지

56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140쪽.

57 『澗湖集』 권6, 書, 「答柳季方【義養】」.

58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47·76쪽.

59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五衛 都摠府副摠管柳公墓碣銘 并序」(『江漢集』 권19, 墓碣銘); 「贈貞夫人韓氏墓誌銘 并序」(『江漢集』 권18, 墓誌銘).

60 『강한집』 권8, 「진암집서」에 근거한 조성산(2008), 앞의 책, 202·289쪽.

61 영조의 (청명당 사건)처분에 정존겸, 이명식, 윤시동 등 중립파로서 남당에 동조한 노론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다(최성환(2009a), 앞의 논문, 90-91쪽).

만⁶², 그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⁶³ 기존의 연구성과는 노론을 단일집단으로 전제하지 않고 세분화하여 그 성격을 고찰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토로도 유의양의 의례참여 배경은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다. 비록 서유린·서유방 형제, 정종겸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찾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정도의 정치적 위치는 짐작해볼 수 있다. '1794년(정조 18) 남인 체제공이 도제조를 맡은 존호도감에서 존호를 정하고, 노론 벽파 김종수의 건의로 국왕의 격식인 옥책금인을 갖출 때, 이병모가 노론 시파로서 옥책문을 지었던 것'⁶⁴처럼, 유의양도 '노론 시파'로서 의례 편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의양을 중심으로 『오례통편』의 편찬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의 『오례통편』 편찬과 추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 5월 12일에 올려진 교정책자⁶⁵를 예문관에 보내어 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진함이 발견되어, 결국 1810년(순조 10)에 가서야 이지영이 수정본을 올리게 된다.⁶⁶

이 의례서의 완성은 순조대이지만, 초고본이 올려진 것은 정조 12년이었

62 숙종 후반~영조 초, 노론의 당론을 주도한 이의현은 유의양의 아버지 柳懋의 만사를 지었으며(『陶谷集』 권4, 詩), 그의 딸은 유의양의 재종조모이다. 그리고 이의현은 18세기 낙론학파를 이끌어가는 김창협과는 척질(정만조(2012b), 앞의 논문, 275-277쪽)이다. 유의양은 노론으로서, 동당계 산림·淸流의 낙론학파에 속한 이천보, 김원행, 황경원, 서유린 등(최성환(2009a), 앞의 논문, 77-78쪽)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63 북당이 대개 낙론 탕평당과 연결되며, 남당은 호론 및 청명당계와 서로 맥을 통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공식이 맞는 것은 아니고, 사도세자 문제 등의 정치 사안과 동공파의 친소 관계 및 개별적 이해에 따라 그야말로 합중연횡이 무상하였다(정만조, 『영조말·정조초의 정국 동향』,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23쪽).

64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58쪽.

65 『승정원일기』 1788년(정조 12) 5월 12일(계유).

66 『순조실록』 1810년(순조 10) 6월 24일(정미).

다. 이때의 정치 상황은 특별했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 2월 11일 남인 체제공을 우의정에 발탁하면서 노론 김치인을 영의정, 소론 이성원(李性源)을 좌의정으로 삼은 3상 정권을 출범시켰으며, 무신난 60주년이 되는 이 해 3월 1일 오광운, 홍경보, 이종성 등 남인과 소론계 인사들을 재평가하고, 12월 26일 체제공을 통해 청남계의 명의죄인을 사면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선세자 보호에 힘썼던 박명원의 건의에 따라 선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를 모신 의열궁의 공호를 선회궁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1789년(정조 13) 양주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 현릉원으로 천원하는 데, 이시수의 아버지 이복원이 시파로서 천원 과정의 의주(儀注) 관계 일을 맡았다. 정조 16년에는 이지영이 아버지이면서 선세자의 공료였던 이만회(李萬恢)의 말로써 선세자가 모함을 받았음을 밝힌 신원소를 올렸다. 이로 인해 영남만인소에서 시작된 선세자 신원, 금등 및 선세자 추존 등, 선세자 추숭사업은 계속 이어졌다.⁶⁷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세자 추숭사업 및 『오례통편』 편찬과 관련하여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도해볼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지영은 정조대에 예조정랑 등의 직임을 맡아 유의양과 함께 『오례통편』 편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복원·이시수 부자도 성호 집안사람들인 이맹휴·이가환 등과 함께, 정조 즉위 초부터 선세자 추숭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남인·소론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정조대 선세자 추숭사업의 실무자로서 의례 편찬에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정황은 『오례통편』의 편찬성격 규명과 관련이 있다.

또, 1788년(정조 12) 3상 정권의 체제공과 이성원, 그리고 정조대에 재평

67 이상, 정조 12년의 특별한 정치적 상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정만조(2017), 앞의 논문, 851-855쪽; 최성환(2009a), 앞의 논문의 〈名義 죄인 사면과 疏通〉, 202-213쪽, 220쪽).

가 받는 오광운과 이종성 등은 추승사업 실무진 및 『오례통편』 편찬자들과 영조대부터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다. 체제공을 통한 청남계의 명의죄인 사면도, 영조의 정국에 참여했던 남인·소론이 정조대에도 의례서 편찬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가 하면 서유린·서유방 형제, 그리고 정존겸의 학파와 정파는 유의양의 정치적 성격과 의례참여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인물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겠다.⁶⁸

영조대 『춘관지』 편찬자인 이맹휴와 정조대 이 의례서의 수정을 명받은 이가환 등은 성호 집안사람들이다. 성호 이익은 오광운으로부터 근기남인의 산림적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존재였다. 이 때문에 성호 집안은 노론이 집권했던 영조의 탕평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아 아들 이맹휴가 정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성호의 종손인 이가환은 정조 말년에 남인의 영수 체제공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되었다. 영조대 오광운의 조카사위이며, 이지영(연안 이씨 이광정 후손)의 생질인 체제공으로 대표되는 남인의 정계진출은 성호 집안뿐만이 아니었다.

이만희 역시, 이광정·이창정 후손으로서 노론 인현왕후 민씨 집안, 그리고 소론 조재호 집안과의 인연으로 노·소론 위주의 정국에서 남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의 아들 이지영이 정조대에 『오례통편』 편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집안의 인연에 힘입은 것이다.

정조는 재위 14-16년 동안 좌의정 체제공만으로 단일 재상 정부를 운영하면서, 노·소론에 비해 약세인 남인의 정계진출과 그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체제공은 이가환, 이지영 등을 요직에 불러들여 추승사업

68 다음의 정치사 연구를 참고하여 의례 편찬자 중심으로 정리하였다(정만조(2011), 앞의 논문; 정만조(2012b), 앞의 논문, 279-284쪽;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55·860쪽).

을 함께 준비했다. 1793년(정조 17)에는 『춘관지』를 간행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⁶⁹, 그도 성호 집안사람이다. 예조정랑 이복휴(1729-1800)인데, 1753년(영조 29) 25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성호가 보낸 축하의 글이 전한다.⁷⁰

오광운과 나란히 거론되는 이종성은 영조대 그의 추천에 의해 이맹휴가 『춘관지』 편찬에 참여하였으므로, 의례연구에서도 주목해야할 인물이다. 여기서는 훗날 무신난의 공훈을 인정받아 새로운 시호까지 받은 소론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자. 그러면 정조대 의례 참여자인 이복원·이시수 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성원은 이종성의 후계자이다. 이성원은 정조가 소론 탕평파들과 대립 노선을 견지하는 준수 성향의 인물을 등용⁷¹할 때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종형 이복원과 함께 추승사업에 활발히 참여했다. 조부 이정신(李正臣)도 경종 때 노론 세력을 탄핵하고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소론이다. 이복원의 아버지 이철보(李喆輔)는 영조대 『상례보편』(영조 28)의 편찬자이며, 아들 이시수는 1796년(정조 20)에 정조에게 『춘관지』의 완성을 명받았다.⁷² 또 이시수는 대를 이어 정조 말년에 정승직에 올랐다.⁷³

『오례통편』 편찬자인 유의양은 1789년(정조 13) 8월 이후로는 어떠한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정조 13년에 72세의 나이였으므로 치사(致仕)하고 정계에서 물러났거나, 몰년⁷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미 별세했을 것으

69 『승정원일기』 1793년(정조 17) 10월 1일(신유).

70 『星湖先生全集』 권6, 「賀心休進士」.

71 『履園遺稿』에 근거한 최성환, 「정조의 정국 동향과 僻派」, 『조선시대사학보』 51(2009b), 227쪽.

72 『정조실록』 1796년(정조 20) 7월 8일(신해).

73 『정조실록』 1799년(정조 23) 4월 8일(병신).

74 『全州柳氏駱峯公派譜』(회상사, 1994), 336쪽에는 1786년(정조 10) 69세로 졸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승정원일기』 1788년(정조 12) 3월 21일(계미)까지도 戶曹參判으로

로 추정된다. 유의양은 정조 11년에 정권을 잡게 되는 서유린·서유방 형제가 속한 동당계 낙론학과 인물들과 친밀한 인연을 맺으며, '선세자의 대왕 추존을 목적으로 하여, 군신 화합의 장을 추구한 정조'⁷⁵의 탕평정국에서, 노론 시파로서 남인 이가환·이지영·이복휴, 소론 이복원·이시수 등과 함께 선세자 추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례 전문가였다.

『오례통편』 편찬과 관련된 인물 중심의 검토를 통해, 정조의 정국에서 당파를 초월한 인적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편찬시점에 주목하여, 『오례통편』의 편찬의미에 접근해볼까 한다. 『오례통편』 편찬 명이 있었던 갑진년(甲辰年, 정조 8)⁷⁶ 7월에 문효세자의 왕세자 책립이 있었다. 정조는 이를 계기로 정조 즉위 후 사도세자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죄를 입은 준소계 인물과 서명선을 탄핵했다가 처벌된 인물들을 사면해 주었다. 이 사면은 정조 12년에 이뤄지는 남인과 소론에 대한 포상과도 연결된다.

정조 12년은 어떤 해인가? 앞서, 『오례통편』 초고본의 완성시기이면서 정치 상황이 특별했던 해로 언급하였다. 그해의 노론·소론·남인 3상 정권 출범을 '선세자 추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며, 그해를 추숭사업의 사전준비 기간으로 보는 견해⁷⁷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다만, 본고는 '사전포석'에 정조 8년에 사면 받은 이덕사와 조재한의 사례까지 포함해 두고자 한다. 이미 위의 연구가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처벌과 사면을 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영조대 의례서의 편찬과도 연관 지어볼 수 있으므로 의례 편찬자를 중심으로 언급해보겠다.

활동하고 있으므로 물년을 확정할 수 없다.

75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60쪽.

76 『弘齋全書』 권183, 群書標記 5.

77 이 단락의 정치적 상황은 정만조(2017), 앞의 논문, 847·851·858쪽과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207쪽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덕사는 『속오례의』 편찬자인 이덕수와 같은 집안사람⁷⁸으로 당색은 소론이다. 그리고 조재한은 『상례보편』의 의례 대상자인 현빈의 사촌이며, 현빈의 오빠인 조재호는 또 다른 『상례보편』의 의례 대상자인 인원·정성왕후와 함께 사도세자의 보호세력이었다. 이종성도 『속오례의』 편찬자인데, 그 역시 사도세자 보호론자로서⁷⁹, 무신난 60주년에 재평가 받는 남인과 소론계 인사에 포함된다. 결국, 정조의 처벌과 사면·포상은 선세자에게 우호적이었던 세력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황 안에서 보면, 정조 즉위 초의 소론에 대한 처벌도 '선세자 추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다시 편찬시점으로 돌아가 기념일과 연계해보면, 『오례통편』은 선세자 추숭사업을 위해 마련된 편찬물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업의 사전준비가 갖춰진 시점은 왜 무신난 60주년일까? 왕세자 책립도 같은 의미를 가지겠지만, 영조의 무신난은 왕권의 정통성, 그리고 왕실의 권위 확립과 관련된 사건이다.⁸⁰ 정조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기념일을 특별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세자 추숭사업의 목적이 영조의 무신난이 갖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이었기에 준비도 특별했다. 이와 같은 행사에 사용할 의례서였기에, 서명에도 격에 맞는 '오례'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마치 영조가 재위 16·17년의 경신처분·신유대훈으로 자신의 왕위 정통성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

78 이덕사는 선조 명신인 李濟臣(1536-1583)의 후손으로 교리를 지냈고, 조재한과 함께 소론 색목 지님(정만조(2017), 앞의 논문, 844쪽). 이제신은 이덕사와 이덕수의 6대조이다.

79 이종성은 김상로, 홍계희, 문녀 등의 선세자 위해 세력에 맞서 보호를 자임해온 인물이다. 영조 올해년에 역적의 와골로 지목된 이종성은 준소 이광좌를 계승하였다(정만조(2017), 앞의 논문과 최성환(2009a), 앞의 논문 참고).

80 정만조(2012a), 앞의 논문, 23쪽.

『속오례의』라는 이름의 의례서를 편찬한 것⁸¹과 같다. 그동안 편찬한 의례서를 고증하고 종합하여, 의주와 연혁 등의 방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 『춘관통고』야말로 정조가 만들려고 했던 완결성을 갖춘 의례서이며, 『오례통편』은 그 과정의 산물⁸²이라 하더라도, ‘오례’라는 이름의 의례서는 왕권을 과시하는 행사에 ‘명목상’ 꼭 필요했다. 이로써 비슷한 성격, 또는 더 완성도 높은 의례서인 『춘관지』, 『춘관통고』 등이 동시에 편찬되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정조가 재위 10년 ‘구선복 옥사를 통해 왕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이를 마무리한 이후, 정조 11년에 소론에서 노론 시파로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며, 그해 후궁 간택을 통해 노론계 사류의 지지까지 기대한 것은, 조정 내외와 왕실 상하 모든 세력의 합의와 지지를 받아 추송행사를 치르려 하던 것이다.⁸³

그 실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시점이 ‘정조 12년’이며, 이 해가 ‘무신난 60주년’이라는 것이 『오례통편』의 편찬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이다. 편찬시점으로 거론된 무신난 기념일, 그리고 그 무신난과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 남인·소론·노론의 서로 다른 당색의 구성원들이 의례 편찬자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다.

실록은 『오례통편』의 편찬 이유를 ‘원편(原編)과 속편(續編)을 각기 한 책으로 만들면서 갑작스레 상고하는 즘음에 서로 참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질로 만든 것’⁸⁴이라고 한다. 하지만 표면 그대로의 이유만으로

81 박수정, 『영조대 『國朝續五禮儀』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7).

82 『오례통편』은 정조가 즉위 직후, 국정을 수행할 정부기관들의 재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편찬물이며, 『춘관통고』야말로 정조의 의도가 담긴 책으로 『오례통편』은 그것의 산물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83 정만조(2017), 위의 논문, 848-858쪽.

84 『정조실록』 1787년(정조 11) 7월 3일(무진); 『순조실록』 1810년(순조 10) 6월 24일

그 편찬의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오례통편』은 행사의 실제 운용에 필요한 의례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조 8-12년의 정치적 상황은, 이 의례서가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정조 9)⁸⁵과 함께 법과 의례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성에 의의를 두고 있는 편찬임을 보여준다. 『오례통편』은 ‘열성조가 펴낸 의문(儀文)을 일통(一統)의 책으로 합하여 만세의 헌장(憲章)을 만든 것’이며, ‘이 책의 편찬을 명하신 것은 우리 선대왕께서 열성조의 제작(制作)을 계술하여 만세의 헌장이 되게 하려는 뜻’⁸⁶이 담긴 의례서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예학적인 관점에서만 다뤄진 정조대 『오례통편』 간행을 정치사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정조의 출생 시점에 편찬된 『상례보편』을 비롯하여, 두 번에 걸쳐 편찬된 『상례보편』은 의례 대상자가 모두 선세자 보호세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례서가 『오례통편』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선세자 추숭에 필요한 의전의 전거를 마련하여, 정조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한 『경모궁의례』, 『궁원의』, 『송사전』 등은 ‘사체가 오례의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례통편』의 편찬의미는 선세자 추숭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남인으로서 성호 집안의 이맹휴·이가환·이복휴, 연안 이씨 이광정 후손의 이만회·이지영, 소론으로 월사 후손의 이복원·이시수 및 노론의 유의양

(정미).

85 『정조실록』 1785년(정조 9) 2월 24일(갑진).

86 『순조실록』 1810년(순조 10) 6월 24일(정미).

등이 의례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추숭사업의 실무자들이며, 이 가운데 유의양과 이지영은 『오례통편』 편찬자이다.

그리고 『오례통편』의 편찬시점에 주목해 보면, 유의양이 『오례통편』의 편찬을 명받은 1784년(정조 8)은 문효세자 책립과 이에 따른 왕실어른에 대한 존호 추상이 있었던 해였고, 이지영이 그 초고본을 완성하여 올린 정조 12년은 무신난 60주년을 맞은 해였다. 즉, 『오례통편』은 ‘왕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 확립’이라는 선세자 추숭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념일에 맞춰 편찬되었다.

더 나아가, 기념일에 거론된 무신난 관련 인물들은 선세자 추숭사업의 실무자, 또는 『오례통편』을 포함한 의례서 편찬자들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다. 남인 오광운·채제공, 소론 이종성 등, 영조의 탕평정국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정조대에도 활약했다. 사면과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했고, 후손 또는 정치적 후계자들과 함께 다시 등장했다. 이는 여러 정파의 안배를 통해 자신의 의도가 신하들의 총의(總意)에 의해 구현되도록 한 정조의 정국 운용술이면서 ‘정치적 연출’이다.

『오례통편』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례통편』은 의전준비로 마련한 정조대의 다른 의례서들과 위상과 격이 다른 편찬물이다. 서명에 포함된 ‘오례’는 조선시대 의례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선세자 추숭사업을 위해, 정치적·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동원되었다. 정조는 그러한 장치로 『오례통편』을 편찬하였고, 이를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계기로 활용하였다.

의례연구라 하면, 무엇보다 의례내용 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의례서가 법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조대 『오례통편』과 짝을 이루는 『대전통편』에 대한 고찰도 병행해야 한다. 법전과 전례서뿐만 아니라, 정조는 『악통(樂通)』, 『병학통(兵學通)』

등 '통(通)'이라는 키워드로 아우를 수 있는 온갖 국가 문물제도를 통섭하는 편찬사업을 벌였다. 이러한 사업 전반에 걸쳐 정치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정조대 의례연구가 나아갈 방향이다. 정조대 의례서들은 국내외의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물정비 차원의 편찬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정치적인 고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본고를 시작으로, 후속연구로서 설득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江漢集』(黃景源)·『景慕宮儀軌』·『陶谷集』(李宜顯)·『漢湖集』(金元行)·『星湖先生全集』(李瀾)·『靑莊館全書』(李德懋)·『弘齋全書』(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宮園儀』(장서각 K2-2429).
『弘齋全書』(규장각 奎 3031)·『春官志』(규장각 奎貴 963)(kjg.snu.ac.kr).
『國朝五禮通編』(규장각·장서각·이화여대도서관 소장 합본).
『春官通考』(上·中·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2. 단행본

- 김인걸 외,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유의양 저, 최강현 역주, 『북관노정록』. 신성출판사, 1999(일지사, 1976).
이경구 외,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 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사, 2017.
이태진 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_____,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정조대왕자료집』 3. 2017.
『全州柳氏駱峯公派譜』. 회상사, 1994.

3. 논문

- 김문식,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의 자료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7a, 65-106쪽.
_____, 「『春官志』 필사본의 원문 비교」. 『성호학과의 인물들』 4, 성호학회, 2007b, 45-65쪽.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한국학보』 114, 일지사, 2004, 95-131쪽.
박수정, 『영조대 『國朝續五禮儀』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

- 위 논문, 2017.
- 송지원, 「정조대 의례 정비와 『春官通考』 편찬」. 『규장각』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2011, 97-151쪽.
- 이승복, 「유의양(柳義養)의 유배체험과 그 제시 방식」.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75-109쪽.
- 이현진, 「이복원의 궁원의(宮園儀) 편찬 과정」. 『문헌과 해석』, 문헌과해석사,
2011, 159-180쪽.
- _____, 「정조대 국가전례서의 편찬과 그 성격: 『국조오례통편』과 『춘관통고』의
「흉례」를 중심으로」. 『영·정조대 문예증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
구원출판부, 2014, 141-214쪽.
- 정만조, 「영조말·정조초의 정국 동향」.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3-334쪽.
- _____, 「肅宗後半~英祖初의 政局과 密菴 李裁의 政治論」. 『密菴 李裁 研究』, 영남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288-373쪽.
- _____, 「朝鮮後期 延安李氏 三陟公派의 근거지 확산과 坡州 정착」.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07-148쪽.
- _____, 「영조와 그 시대」. 『영조대왕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a,
15-44쪽.
- _____, 「星湖學의 家門的 배경」. 『한국학논총』 37, 2012b, 261-292쪽.
- _____, 「『燃藜室記述』의 종합적 이해」. 『실학시대의 역사학 연구』, 실시학사,
2015, 229-340쪽.
- _____, 「정조 치세의 정국동향과 정책추진」. 『정조대왕자료집』 1, 2017, 837-862쪽.
- _____, 「효의왕후 생애를 통해 본 정조 비빈들의 삶」. 『정조대왕자료집』 2, 2019,
803-824쪽.
- 정재훈, 「18세기 국가운영체제의 재정비」.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1, 201-233쪽.
-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a.
- _____, 「정조의 정국 동향과 僻派」. 『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b, 211-262쪽.
- _____, 「정조의 왕세손 시절과 학습」. 『정조대왕자료집』 1, 2017, 863-881쪽.

국문초록

국가 의례서 편찬은 예학 이론서나 실제 운용의 측면에서 실용적 의미도 가지지만, 그 이상의 상징성과 정치성을 포함한다. 『오례통편』의 편찬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포착해낼 수 있다. 이 의례서는 정조가 선세자 추숭사업을 통해 종사의 죄인이라는 혐의를 벗고 군주로서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는 과정에서 편찬한 의례서이다.

정조는 당색을 초월한 모든 세력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어 선세자 추숭행사를 치렀다. 추숭사업의 실무자들 가운데, 노론 유의양과 남인 이지영은 『오례통편』 편찬자이다. 유의양이 편찬을 명받은 정조 8년에는 왕세자 책립이 있었고, 이지영이 초고를 완성하여 올린 정조 12년은 무신난 60주년인 해였다. 즉, 『오례통편』은 ‘왕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 확립’이라는 선세자 추숭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념일에 맞춰 편찬되었다. 이 기념일에 거론된 무신난 관련 인물들은 영조대 탕평정국의 주요 인사들이면서, 정조대에도 활약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의례서의 정통성과 권위의 표현으로 통하는 ‘오례’가 서명에 포함되었다.

성공적인 선세자 추숭사업을 위해, 정치적·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동원되었다. 『오례통편』이 바로 그러한 장치로 마련된 의례서이다. 정조는 『오례통편』 편찬을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계기로 활용하였다.

투고일 2020. 3. 20.

심사일 2020. 7. 23.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국조오례통편(*Gukjo O'rye Tongpyeon*), 국조상례보편(*Gukjo Sang'rye Bopyeon*), 경모궁의궐(*Gyeongmo-gung Uigwe*), 궁원의(*Gung'weon'ui*), 송사전(*Songsajeon*), 유의양(Yu Eui-yang), 이지영(Yi Ji-yeong), 추숭사업(commemoration projects)

Abstracts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Gukjo O'rye Tongpyeon* during King Jeongjo's Reign

Park, Su-jeong

The compilation of a series of ritual books concerning national ceremonies also has practical meaning in terms of the theory of etiquette or actual operation, but includes more symbolism and politicalness. The same meaning can be found in the compilation of *Gukjo O'rye Tongpyeon* ("O'rye Tongpyeon" from now on), a national ritual book compiled by King Jeongjo. *O'rye Tongpyeon* was compiled by Jeongjo in the process of breaking from the frame of being the son of a late offender to the integrity of dynasty and ensuring his legitimacy as a monarch, by his efforts to reestablish the honor of his late father. The meaning of the compilation of *O'rye Tongpyeon*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the such commemoration projet.

Jeongjo tried hard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his father could be honored with the blessing and support of all political factions. The 8th year of Jeongjo's reign, which was also when *O'rye Tongpyeon*'s publication was ordered for the first time, was when his son Munhyo was newly named as the official Crown prince. Meanwhile, the 12th year was no other tha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Mushin-year revolt, which had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Jeongjo to demonstrate his own legitimacy and leadership. Jeongjo must have been very much aware of the symbolic nature of that year, as believing his efforts to reestablish the honor of his late father was no different from what Jeongjo did in the Mushin-year, he obviously tried to complete preparations for such honoring in that particular year. This very aspec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our trying to determine the political background of *O'rye Tongpyeon*'s publication.

We can further surmise that Jeongjo would have been in need of the name "O'rye" to be placed in the title of *O'rye Tongpyeon*, as such description would go a long way in making Jeongjo's efforts appear as a legitimate one worthy of the dynasty's past glory and especially of time-honored protocols ('O'rye-eui, 五禮儀). Along with *Daejeon Tongpyeon*, we can see *O'rye Tongpyeon* was compiled as a symbolic source of authority.